

웹디자인과 개발자를 위한 웹사이트 메뉴 네비게이션 연구

A Study on the Menu Navigation of Website for Web Designer and Director.

신창현, 홍석기

서울 산업대학교 조형대학 공업디자인전공
서울 산업대학교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Shin Chang-Hyun, Hong Suk-gi

Dept. of Industrial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Dept. of Industrial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Keyword : Website, Menu, Navigation

1. 서론

우리는 흔히 레이아웃에서의 그래픽적인 아름다움이나 플래시 무비, 속웨브 무비 등과 같이 동영상적 재미요소가 적절히 적용된 웹사이트를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라 여기고, 이와 같은 기준을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이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의 하나인 "메뉴 네비게이션(Menu Navigation)"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웹사이트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이동이란 공간의 밖에서 안으로 또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웹사이트를 흔히 건물에 비유한다. 외관이며, 구조, 설계, 창문 등 이를 비유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곤 하는데, 여기서 다뤄질 "메뉴 네비게이션"은 이러한 건물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현관이 있고 각 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사무실로 통하는 문도 있고, 물론 비상구도 있는, 건물 전체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로는 건물의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전체구조를 쉽게 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비틀어 놓기도 한다. 아무리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결통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마치 바로 옆 사무실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지 못하고 1층 로비에서부터 다시 거슬러 와야 한다면, 이는 미려한 외관이나 최첨단 기능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악의 건축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예를 종종 경험한다. 이리저리 사이트 내부를 탐색하다가 현재의 위치를 잃고, 부득이하게 다시 "Home" 버튼을 눌러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경험을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잘 짜여진 메뉴 네비게이션은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사이트의 구조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이러한 오류들을 최소화시킨다. 성공적인 메뉴 네비게이션은 단순히 "이동경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구조적 인터페이스로써 웹사이트와 사용자를 연계시키는 커다란 매개체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메뉴 네비게이션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메뉴 네비게이션의 구성요소 및 성공적인 메뉴 네비게이션의 구성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사이트의 구조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들을 소개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메뉴 네비게이션의 종류

완성도가 높은 웹사이트에서는 사이트 탐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네비게이션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트리구조를 가진 정보의 계층을 상위와 하위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위한 수직적인 이동방식을 기준으로한 "계층적 네비게이션

시스템" 이 웹사이트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정보의 형태를 반영하기에는 사이트 개발단계에서 고정화 되어버리는 계층적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그 활용성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만 했고 현재는 이를 대신하여 여러 종류의 네비게이션 구성요소들을 다중지원하는 복합적인 네비게이션 시스템(Hybrid Navigation System)과 동적 인터페이스 방식인 다이나믹 네비게이션 시스템(Dynamic Navigation System)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정보 탐색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 네비게이션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글로벌 네비게이션(Global Navigation)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어 언제나 수직 및 수평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비게이션 방법으로 요즘 웹사이트들을 보면 전체 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적용되어진 메뉴바를 볼 수 있는데, 주로 메인 카테고리의 메뉴항목을 담고 있다.

b. 로컬 네비게이션(Local Navigation)

메인 카테고리에서 파생되는 여러 서브 카테고리를 가진 웹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네비게이션 방식으로 사이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네비게이션을 보완하기위하여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들을 메뉴화하여 함께 적용시킨 방법이다. 규모가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글로벌 네비게이션 방식과 로컬 네비게이션 방식을 병행하여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c. 문장에서의 링크(Ad Hoc Navigation)

웹 페이지의 콘텐츠를 살펴다 보면 문장 속에 별색이나 밑줄 등으로 구별되어진 링크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사이트 설계에서부터 고려되어지는 다른 네비게이션 방법과는 달리 콘텐츠가 채워지면서 파생되는 링크들을 수용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방법이다.

주로 텍스트메뉴(Hyper Text Link)로 제공되며 링크의 전후에 이동장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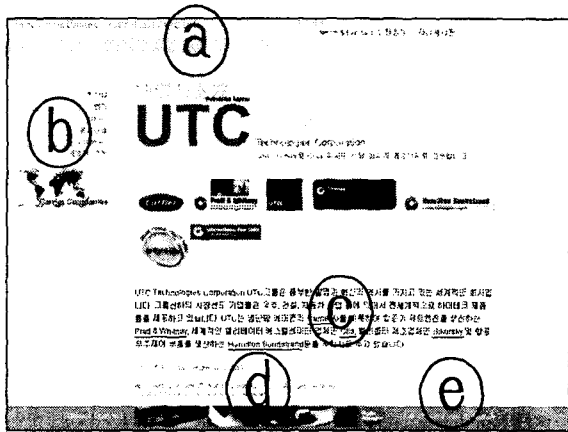
d. 인스턴트 네비게이션 (Instant Navigation)

해당 페이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용빈도가 높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이다. 주로 고정 네비게이션인 글로벌 네비게이션 및 로컬 네비게이션과는 차별화된 위치에 놓여지는데, 이는 해당 범주와는 다른 콘텐츠로의 이동임을 암시하여 사용자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 검색창과 사이트맵 (Search & Sitemap)

사이트에서 제시된 메뉴 네비게이션에 의해서 탐색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가 원하는 콘텐츠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콘텐츠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있는 검색방법(Search)과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조 전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메뉴화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사이트의 정보형태를 포괄적으로 인지시켜주며, 전체 콘텐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사이트의 지도이다.

(그림 1)은 위와 같은 네비게이션 요소들이 화면에 적절히 배치되어 하나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예이다.



ⓐGlobal Navigation ⓑLocal Navigation ⓒAd Hoc Navigation
ⓓInstant Navigation ⓔSearch

(그림 1) Menu Navigation System

3. 성공적인 네비게이션 구성요소

정보가 많은 큰 규모의 사이트에서는 "Depth가 깊다" 또는 "복잡하다"라는 말은 흔히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이트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석하고는 사이트의 분류체계와 구성요소들을 재조정한다. 물론, 사이트의 구조에서 오는 불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 중 과연 몇 퍼센트나 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사용할 지가 의문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아주 직관적이며, 인내심이 적다. 접속과 동시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웹사이트는 자체의 목적성과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불편사항은 직접적으로는 사이트의 네비게이션에서 느끼는 사용자의 반응이 바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네비게이션은 사용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예측하여 이동경로를 최소화하며, 적재적소에 연결고리를 배치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명료하게 원하는 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구성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구조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 둘째. 사이트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셋째. 분명한 시각적 메시지를 반영해야 한다.
- 넷째. 사용자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
- 다섯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여섯째. 보조 네비게이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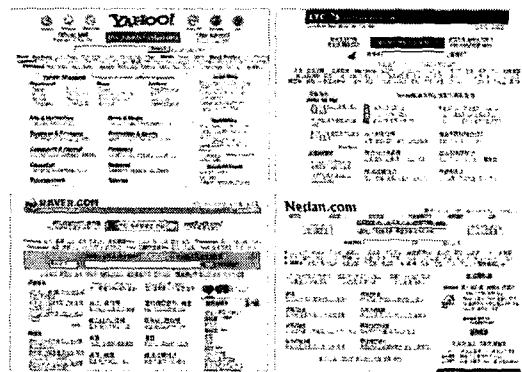
4. Website Menu Navigation for Usability & Identity

최근 웹사이트의 성격들은 과거 단순 홍보위주의 사이트에서 점차 정보집중형 사이트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형 사이트

의 특징으로는 중요정보의 강조,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하위 콘텐츠에 대한 정보들의 도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한 복합적 네비게이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이제는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및 허브사이트, 뉴스사이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제각기 사이트가 보유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네비게이션 방법에 있어 사용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용성 위주의 정보형사이트가 늘어나고 복잡한 네비게이션 기능성을 증시하는 경향을 띠는 복합적이고 나열형인 메뉴 네비게이션이 점점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웹사이트마다의 고유의 구조와 이를 반영한 정체성(Identity)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있다.

이렇듯 정보형 사이트의 유형이 일반화 또는 평준화되어 정체성(Identity)이 불분명해진 사이트들의 대표적인 예로 검색 포털사이트들을 들 수 있는데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의 로고가 없다면 과연 이 사이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Yahoo, Lycos, Naver, Netian

같은 포털사이트라 할 지라도 이미지 검색기능이 강화된 사이트, 커뮤니티가 강화된 사이트 등 서로의 콘텐츠가 다르다면 이를 사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네비게이션에서 정체성(Identity)의 고려가 필요하다. "은행창구와 병원의 창구가 다르고 대형 할인마트와 소형 슈퍼마켓의 창구가 그 외관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며, 같은 과일가게라도 수박이 자랑거리인 집과 참외가 자랑거리인 집의 디스플레이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연구과제

이전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사이트에서의 메뉴 네비게이션은 사이트의 구조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그래픽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함축적인 요소로서 사용자와 사이트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구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메뉴 네비게이션은 디자인 컨셉 및 사이트의 유형별 성격이나 보유 콘텐츠 등과 같이 사이트의 정체성에 관련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이트의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메뉴의 기능적 분류와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쉽게 사용자들의 직관적 접근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